

나주시, 30~40세 난임부부 지원 대폭 늘린다

난자 채취비 등 최대 200만원 난임검진비 지원제 신설 운영

나주시가 기존 난임 부부 지원과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나주시는 4월부터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하기 이전 난자 냉동 지원 등을 통해 고령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함이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으

로 최대 20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난소기능검사(AMH) 1.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소기능 저하(AMH 1.0미만)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어 난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 게도 회당 최대 100만원씩 총 2회를 이번 달부터 지원한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주형 난임시술비'와

난임 조기진단,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난임 검진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난임진단 검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검사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3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는 횡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20~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저질환 없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부부의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끈다.

소득 조건은 없으며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4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 중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35세 이상 여성' 또는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부부(여성)'이다.

난자 냉동 시술비 등 난임 치료 지원 신청은 연중 나주시보건소 2동(2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출산율 상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남도서 한 달 여행하기 함평군, 26일까지 모집

함평군이 전남도 장기여행 체험 프로젝트 '2024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15일 함평군에 따르면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in 함평'은 관광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함평 장기체류 관광객이 SNS 홍보 미션을 수행할 경우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전남도·광주시 외 주소를 둔 관광객 중 함평 여행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자는 7~30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 후기 작성, 체험프로그램 참가, 나만의 함평 숨은 명소 발굴하기 등의 여행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모든 여행과제를 완료하면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 1일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관광정책실(061-320-2204)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

안전 마스크트 공모전 한전KDN, 내달 3일까지

한전KDN이 17년 연속 중대재해 무재해 달성을 위해 대국민·협력사와 함께하는 '한전KDN 안전 마스크트 공모전'을 시행한다.

한전KDN은 안전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오는 5월3일까지 안전 마스크트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전KDN의 공감·안전 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한다.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을 비전으로 성장 중인 한전KDN 업무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상징하는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전KDN 누리집(www.kdn.com) 홍보센터→공모전에서 확인하면 되며 내달 3일까지 업무담당자 이메일(junhee_77@kdn.com)로 접수한 작품에 한 해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된 공모작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금상 1건을 포함해 5건을 선정해 시상한다.

나주=조대봉 기자

함평나비대축제 관광상품 판매 함평군, GS홈쇼핑서

함평군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관광상품을 GS홈쇼핑과 연계해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관광상품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 전세 열차를 통해 전북 군산역 또는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한 후 전세버스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함평나비대축제 관람, 돌머리 해수욕장 및 무지개 다리 산책 등 함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코스로 구성했다. 판매금액은 8만9000원이며 지난 14일 오전 6시 첫방송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GS홈쇼핑에서 판매한다. 생방송 전화 주문 또는 GS SHOP 온라인 쇼핑물,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5월6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함평=신재현 기자

친환경 법씨 온탕 소독장 운영 곡성군, 전염병 예방 효과



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5월17일까지 '법씨 온탕소독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기센터가 온탕소독장을 마련하고 법씨 온탕 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 10개 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자체 온탕소독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농업인에 법씨소독을 지원한다.

법씨소독은 벼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 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벼잎선충 등 종자 전염성병을 예방하며 고품질 쌀 생산의 첫걸음이다.

소독 방법은 우선 탈망기 또는 소금물 정선 등을 통해 충실한 법씨를 고른 뒤 완전히 건조시킨 법씨를 준비해야 한다.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씨 적정량(10kg이하)을 그물망에 담아 물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소독시간 동안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환경 재배의 경우 온탕소독 후 추가로 석회유황(22%액)을 50배로 희석하여 24시간 침지처리하면 키다리병 방제 효과를 99%이상 높일 수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멸종위기 새우란' 특별전 20일부터 함평자연생태공원

함평군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특별전시관과 홍보관에서 '멸종위기 새우란'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자생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멸종위기 2급 식물인 새우란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엄선된 새우란 작품 120점이 전시된다.

화려한 향기와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새우란은 뿌리줄기 모양이 새우를 가늘고 긴 뿌리는 새우 수염을 닮았다.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최대 자생지로써 우리나라 남서해안 도서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다년생 난과 식물로, 동양란이지만 서양란처럼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

함평=신재현 기자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5일 광주서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탄소중립 환경 교육을 펼쳤다.

영산강청 제공

영산강환경청, 늘봄학교서 탄소중립 환경 교육

광주 서초등학교 학생 대상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15일 서구 광주서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1학년생과 함께 탄소중립 등 환경 교육을 진행했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이날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박연재 청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생활을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한 뒤, 붉은귀거북 등 생태교란종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석유)를 사용하는 주변의 다양한

탈것(승용차, 버스 등)을 비교해 알려준 뒤,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주제로 퀴즈도 풀었다.

박연재 청장은 "늘봄학교를 위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을 개발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담양 대나무박물관·죽녹원 아트센터에 실감콘텐츠 구축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이 인용)은 담양군 문화시설인 한국대나무박물관(사진)과 죽녹원 아트센터에 실감콘텐츠 개발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전남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결과물로 담양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대나무와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대나무의 사계를 주제로 한 실감 콘텐츠를 4K 가로 와이드 확장형 미디어아트와 3면의 거울을 통해 대나무숲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전달하며 전시실 입구에 방문객들이 대나무의 분포, 종류 역사 등 대나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람에 재미를 더했다.

죽녹원 아트센터는 기존 이이남아트센터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개조해 설계된 공간으로 1층에는 회화 작품 4점을 활용해 대나무 숲의 사계절을 3D 몰입형 콘텐츠로 새롭게 표현하여 제작했다.

공간 2층에는 담양 대나무숲의 사계 모습을 360도 돛형 스크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로 표현하며 천장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ICT기술과 융합으로 담양이 보유한 문화·문화자원인 대나무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했다"며 "우수 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지난 2월 전시실이 오픈돼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으며 죽녹원 아트센터는 5월개 개방될 예정이다.

박간재 기자